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42-47

화답 송 | 시편 118(117),2-4,13-15 그리고 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
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
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
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
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 1베드 1,3-9

복음환호 송 |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요한 20,19-31

영성체 송 |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
렐루야.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보지 않고도? 어떻게?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선사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의심하는 토마스'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펄펄 끓는 증언에도 도무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토마스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의심과 회의를 반복하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제자들보다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토마스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토마스는 우리의 처지를 성경의 차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동시에 토마스만큼이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마스를 통해 성경의 장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불행하게도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증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의 증언에 의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이 증언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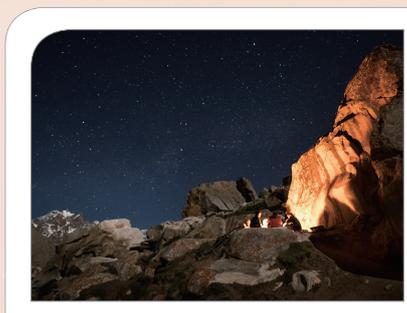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증언, 곧 선포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신앙의 선조들은 이 증언에 따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얻었습니다. 성체 찬미가는 '들음'과 '믿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의심하는 토마스' 덕에 받은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베드로 사도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베드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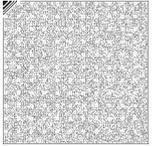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 2,44)

별이 반짝이는 높은 산중은 봄날에도 무척 춥습니다. 험한 산중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습니다.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앞과 뒤를 서로 지켜주며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위험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조차 같이 소유하며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고경미 안젤라
장애인주일학교 자모회, 연희동성당

조용하고 경건한 미사

엄숙하고 조용한 미사 분위기를 누군가 깨뜨리면 당황스럽고 싫지요. 어떨 때는 화도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십중팔구는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부모들 마음은 노심초사, 심장은 더욱 쿵쿵쿵쿵한답니다.

중증에 속하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한창 자랄 때는 어디 가서나 저는 죄인처럼 후닥닥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두고 따로 미사를 보거나 외출을 하려면 아이 옆에 다른 사람을 붙들어 뉘어야 하니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아이의 행동 때문에 일상이 늘 긴장의 연속이라 수시로 눈물 콧물 안 흘려본 발달장애인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은 어디인가?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셨건만 제가 그리로 가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동네 어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동네 교회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들고 돌아 큰 교회에 가보니 장애인 주일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음 편히 성인 예배를 볼 수 있었지만, 아이는 동떨어져 모르는 사람들과 1시간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니 몹시 불안한지 다시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받아 본 명동성당 주보에서 장애인 신앙교육부 강연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 성당에 찾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도, 제 영혼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버스 세 정거장 거리의 지구 본당 장애인 주일학교에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선 중고등부 장애인 친구들과 장애인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미사 도중에 장애인 친구들 중 몇몇이 소

란스럽게 소리 내고,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런데 비장애인 친구들이나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성인 부모들 모두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장애인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니! 그때 저는 또 다른 이유로 감동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런 감사한 분위기의 미사라도 경건한 미사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를 해치면, 그 부모들은 언제나 안절부절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하느님께 맡기고 미사 시간만큼은 우리도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영혼도 좀 쉬어야지요.” 부모들도 이렇게 힘든데, 장애인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노고가 정말 큼니다.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경건한 미사를 모시는 다른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언젠가는 아이와 함께라도 보통의 교중미사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미사를 모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야밤!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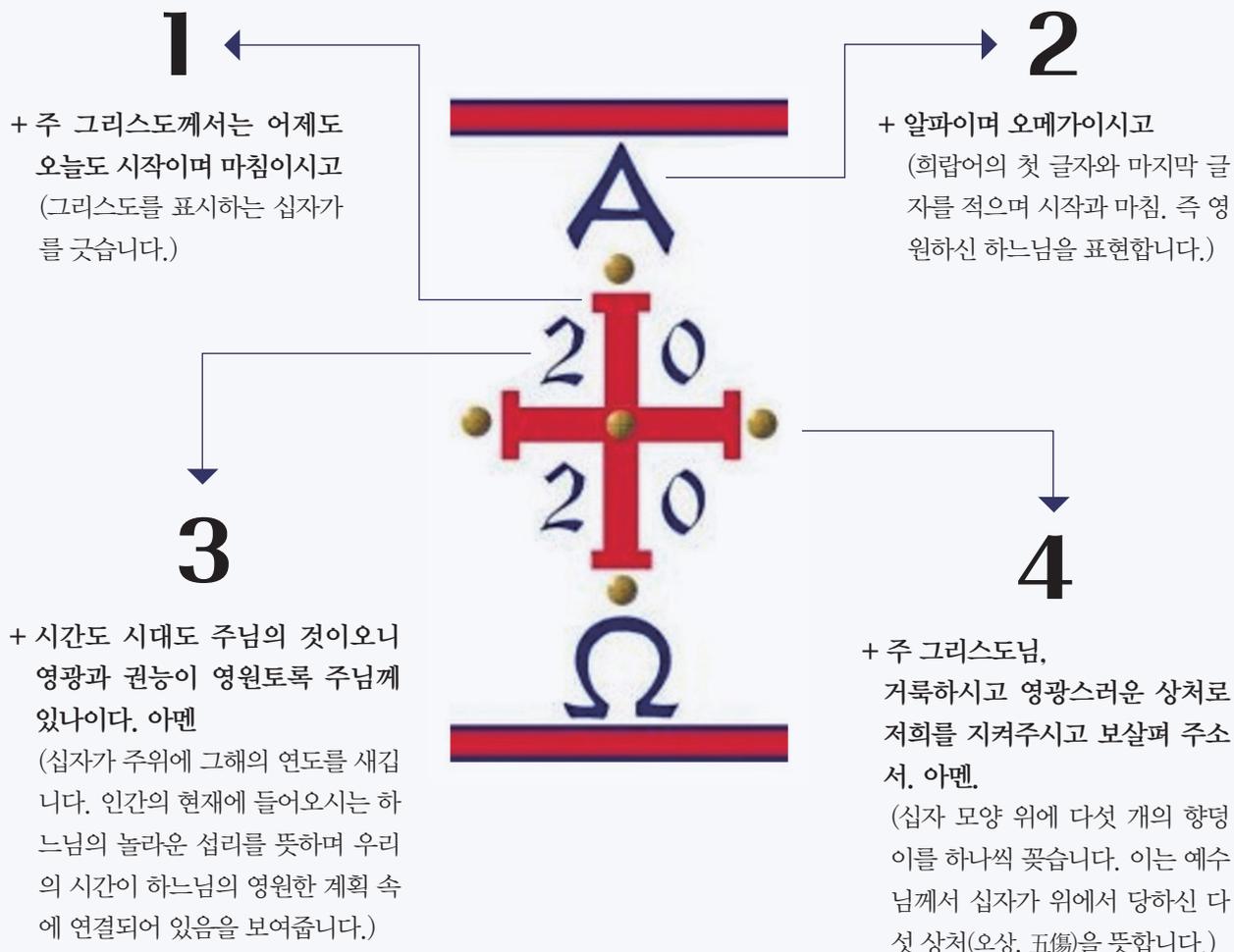
정은희 마리아
마천동성당

마리코 14강 36절 

부활초의 상징과 의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초는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없애시는 빛이심을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이 부활초는 파스카 성야 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대하게 축복하며 부활 시기의 모든 전례 가운데 타오르게 됩니다. 부활초가 지닌 상징들과 의미들을 부활초 축복 기도문에 따라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목국기획연구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 파스카 성야 예식 중 새 불에서 파스카 초에 불을 댕기면서 바치는 기도문 -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요약문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 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이나 묵주기도 또는 십자가의 길이나 다른 형태의 신심 실천에 영적으로 하나 될 때에, 또는 적어도 신경과 주님의 기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칠 때에, 전대사를 받게 된다. 이때에,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가까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

오늘(4월19일)은 ‘부활 제2주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4월20일(월)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23일 임종국 바오로 신부(80세)
- 2008년 4월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 2008년 4월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방송시간>

- TV** : 월-토 6시, 12시, 18시, 21시20분
: 주 일 6시, 9시, 12시, 18시, 21시
- 라디오** : 매일 5시, 18시5분
- 유튜브** :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5시 이후 cpbc 홈페이지·모바일앱·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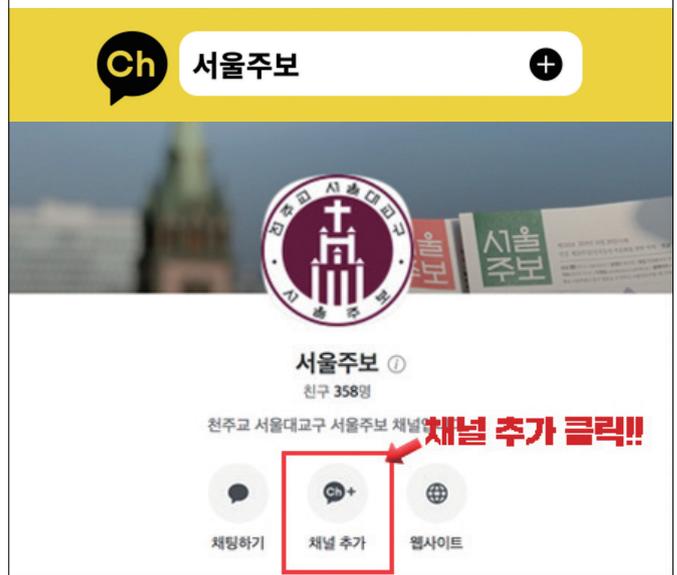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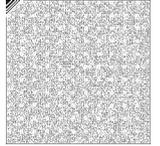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부터 이날이 시작되어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교구는 장애인의 날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서 기념행사(훈자리축제)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염병으로 힘든 이 고통의 시기가 늘 고통받아왔고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는 장애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40년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편견은 장애인을 불편한 대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르기만을 바라게 합니다. 2018년 평창에서 장애인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던 장애 학생 부모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동료, 형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사건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차별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길거리에 점자블록이 깔리고,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의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비장애인과 어울려 노동하는 장애인들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실천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사회에 모범을 제시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당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보다 더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총 258만여 명입니다(2018년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 2천여 명(서울시 전체인구의 4.0%)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교구의 모든 본당마다도 평균 4%의 장애인 신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2,000명인 본당이라면 적어도 80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당에서 그 정도로 많은 장애인이 미사에 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성당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이 성당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불편함을 더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인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평범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교우를 찾아 나서고, 이들이 본당 내에서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당이 어떤 점에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지, 그 사정을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08항; 간추린 사회교리 246항 참조)

서울대교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라파엘사랑결성당’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에파타성당’이 있습니다. 에파타성당은 2019년에 자체 성전을 신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했으며 ‘준본당’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의 연대와 나눔의 과제를 이 두 본당에만 떠밀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본당은 비장애인 신자들에게 장애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성라파엘사랑결성당’이나 ‘에파타성당’까지 직접 갈 수 없는 수많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책임과 사랑의 의무는 여전히 모든 본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각자의 소속 본당에서 불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서, 교구의 모든 본당이 하나같이 제2, 제3의 성라파엘사랑결성당과 에파타성당들이 될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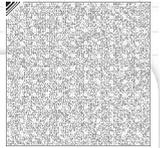
때마침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기자회견마다 수어 통역이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수어 통역 중계는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존재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본당 미사가 중단되어 많은 신자가 가톨릭평화방송(cpb)의 매일 미사로 신앙의 갈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일미사 방송에도 수어 통역이 등장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이왕이면 힘이 좀 더 들더라도 수어 통역 중계가 평일 미사로까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차별에 대하여 우리의 무관심을 뉘우칩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장애인도 “천부적이고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상응하는 온전한 인간 주체”(노동하는 인간 제22항)로서 존엄과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간추린사회교리 148항)는 교회의 가르침을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과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강복을 빕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

유경춘



신간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2코린 6,2)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 199쪽 | 8천원
문의: 031)985-2804

2017년을 끝으로 잠시 멈추었던 미래사목연구소의 사순묵상집이 2020년 새롭게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순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매일 매일의 말씀 묵상 안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고픈 묵상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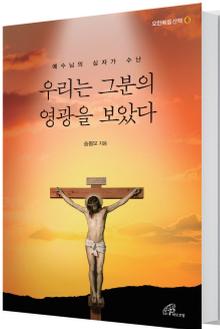


신간

매괴가사, 묵주기도

정훈 지음
기쁜소식 | 72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우리는 흔히 묵주기도를 '복음의 요약판'이라고 한다. 이 책은 묵주기도 바치는 법부터 다양한 기도문으로 묵주기도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도와줄 기도서이자 안내서이다. '요약된 복음'인 묵주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구세사를 관상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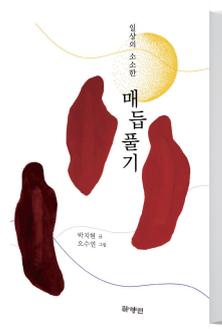


신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 328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예수님 수난사가 담긴 요한복음서 18-19장을 상세히 설명한 요한복음산책 시리즈 여섯 번째 책이다. 제시된 성경 본문의 역사·문화·지리적 배경을 함께 살펴 가며 설명하기에 내용뿐만 아니라 저술된 맥락까지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신간

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

박지현 글 | 오수연 그림
히양인 | 192쪽 | 1만4천원
문의: 02)714-5383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매듭을 경험한다. 일상의 매듭을 바라보며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기도해나가는 이 책은 매듭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일상 속 자신과 주변에 대한 반성과 사랑을 겸허한 기도문으로 담았다.



신간

잊혀진 질문 (개정판)

차동엽 지음
위즈앤비즈 | 280쪽 | 1만5천원
문의: 031)985-2804

이 책은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인생에 관한 절실한 질문 24가지'를 '희망의 전도사' 차동엽 신부가 정리하여 내놓은 대답이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 저자는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간

현대 순교자들과 신앙의 증거자들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지음
36쪽 | 무료 배포(재고 소진 시까지)
문의: 02)796-6440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고 있다. 고통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물질적 지원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